창업분야

누구에게도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경남 함양에서 오늘을 만드는 청년, 최승희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서울 → 경남 함양 마천

나의 고민



내가 하고 싶은 것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재미 있는 것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돈을 버는 것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업으로

지리산 포옹



나마스테 카페



옛술도가



솔바람 민박



30명의 방문 → 1박2일 프로그램 진행

유네스코 등재 남계서원 연계 1박2일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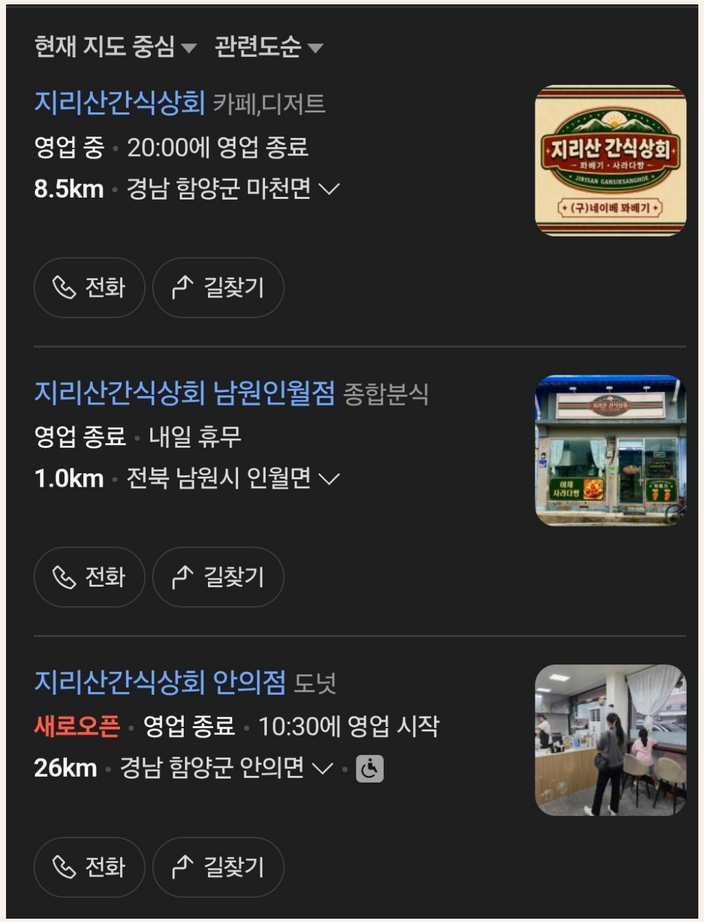
30명의 방문 → 5곳의 지역사업자 → 240만원 매출

"관광객 한 명의 소비가 마을 여러 사람의 소득으로."

나의 또다른 창업


지리산 간식상회
꽈배기 · 사라다빵
JIRISAN GANSIKSANGHOE
OPEN
Freda
Wamo
야채사라다빵
3,000원
주문과 동시에 바로 튀겨주는
꽈배기
부들이
바삭이

4호점 까지 확장



남원 인월
2024년
6월 Open

함양 마천
2026년
5월 Open

함양 안의
2026년
8월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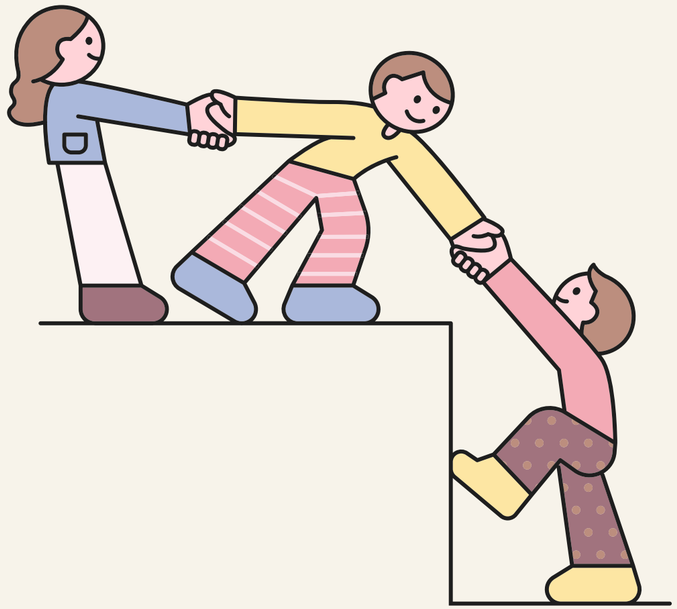
함양 읍내
2026년
10월 중순
Open 예정

.....
2027년
경남 지역
추가 오픈 예정



이 사업으로
몇 명이 돈을 벌고 있는가?

함양





"꽈배기와 커피를 팔면
저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누군가에게 또다시 돈이 흘러갑니다."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할 때 재미있으세요?
돈은 왜 벌고 싶으세요?

함께 무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최승희 | 경남 함양

감사합니다

